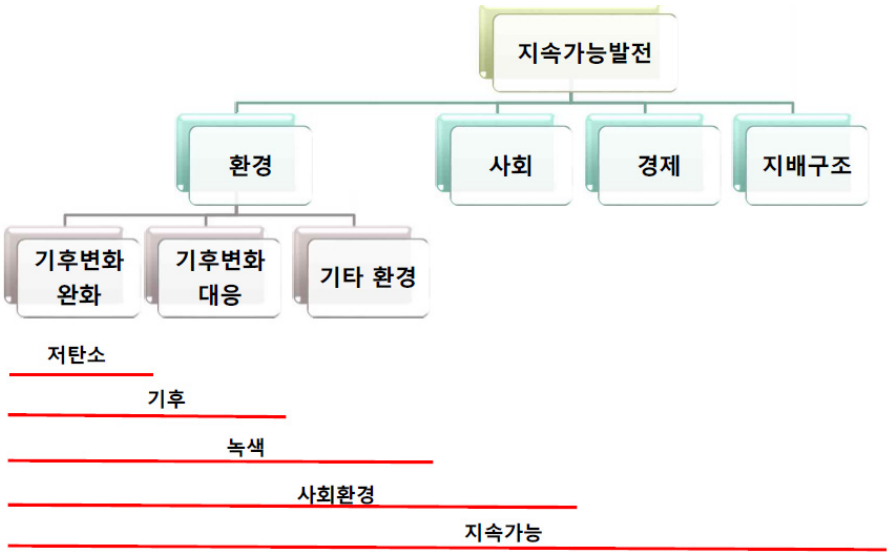
Ⅱ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 논의와 쟁점

1. GRI 표준과 TCFD의 주요내용과 차이점

가. GRI 표준

〈그림 Ⅱ-1〉 지속가능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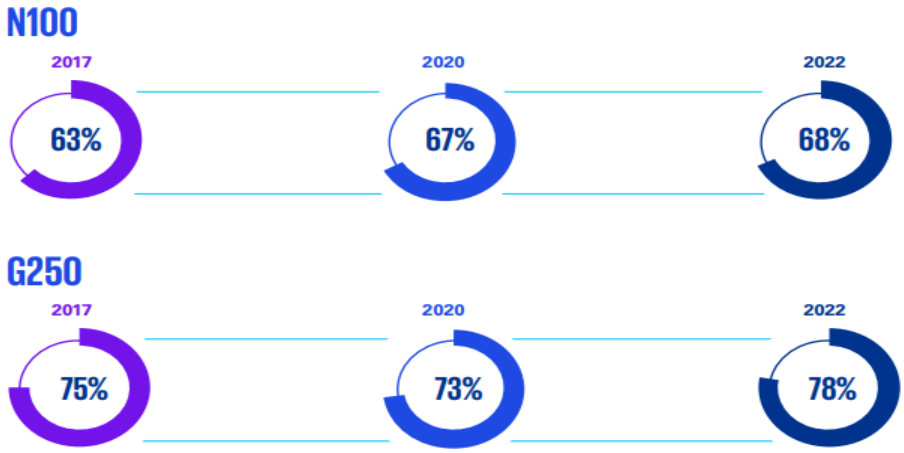
자료: UNEP(2016)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의 등장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 주도의 세계 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18]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진 않으면

18) 전 노르웨이 총리, Gro Harlem Brundtland가 WCED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발간하여 Brundtland Report로도 불림

서, 현 세대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19]을 의미한다.[20] UN 환경계획(UNEP)은 〈그림 Ⅱ-1〉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발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나오던 1980년대는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던 시기였다.

〈그림 Ⅱ-2〉 글로벌 대기업 GRI 표준 사용 비율



주: N100은 5,800개의 국가별 100대 기업, G250는 글로벌 250 대기업임
자료: KPMG(2022)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알려진 엑슨 발데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 관련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된다.[21]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GRI Standards)은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기준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속가능 공시기준이다(〈그림 Ⅱ-2〉 참조). GRI는 첫 번째 글로벌 보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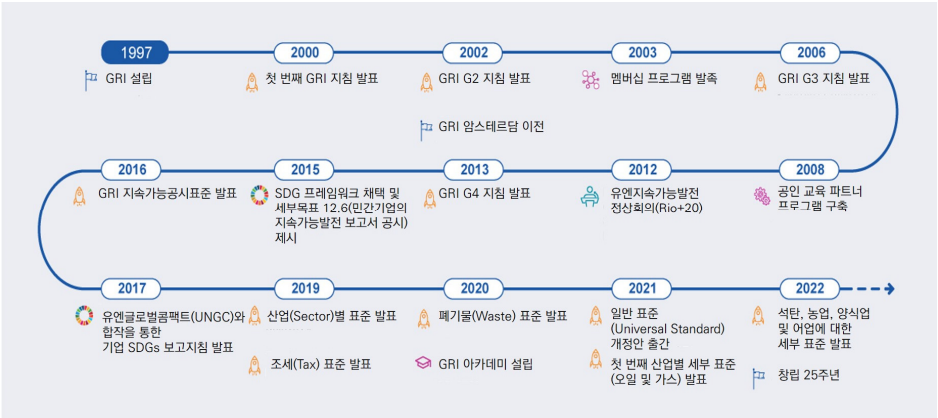
19)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20) 이승준(2021)

21) 역사상 최악의 환경 사고로 알려진 1989년 3월의 미국 엑슨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미국 환경단체 세레즈(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 CERES)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조하는 발데즈 원칙(Valdez Principles)을 발표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UN환경계획(UNEP)과 협약을 맺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1997년 보스톤에서 GRI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GRI는 20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상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됨

인 GRI 지침(Guidelines)을 2000년 6월에 발표하였고 2002년에 G2, 2006년 G3, 2013년 G4 등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GRI 표준(GRI Standards)을 발표하는 등 GRI는 25년 이상 지속가능성 보고 및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 제정기구로서 주도적인 위치를 누려왔다(〈그림 Ⅱ-3〉 참조). GRI는 2021년 10월 5일 개정된 공시 표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간되는 지속가능 보고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림 Ⅱ-3〉 GRI 표준의 역사



자료: GRI Website

1) GRI 표준의 목적과 사용자

GRI는 GRI 표준을 사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의 목적으로 '조직(Organizations)[22]이 지속가능한 발전[23]에 기여하는 방법 또는 목표를 갖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 등의 조직은 GRI 표준을 사용하여 인권을 포함한 경제, 환경 및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Impact)과 함께 조직이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할 수 있다.[24] 또한 이를

22) GRI 표준은 GRI 공시주체를 일관되게 조직(Organization)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의 성격이 기업의 지속가능공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과 기업을 함께 사용하여 기술함

23)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된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함

24) The objectiv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using the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GRI Standards) is to provide transparency on how an organization contributes or aims to contribute to

통하여 조직의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영향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높인다.

GRI 표준은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공시된 정보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GRI 표준은 이처럼 기업 등의 조직이 인권을 포함한 환경과 사회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 공시기준이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해야 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을 척도로 삼게 된다. GRI 표준을 활용하는 대상도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2) GRI의 주요 개념

GRI 표준은 기업 등 조직이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게 잡고 기업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넓은 범위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해결하거나 간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가) 영향(Impact)

GRI 표준에서 핵심적 단어라 할 수 있는 영향(Impact)이란 조직의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의 결과로 인권을 포함하여 조직이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효과를 말한다. 그 영향은 현재 나타나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그 영향은 의도한 결과이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일단 나타나면 돌이킬 수 있거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RI Standards enable an organization to publicly disclose its most significant impacts on the economy, environment, and people, including impacts on their human rights and how the organization manages these impacts(밑줄은 저자가 강조를 위해 추가함)

어떤 조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경쟁 관행, 조달 관행, 세금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공기, 육지, 물, 생태계 등 생물 및 무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토지, 물 그리고 기타 천연 자원의 사용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조직의 영향은 지역 사회, 취약 그룹 또는 사회와 같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조직이 사람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조직은 고용 관행(예: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 공급망(예: 공급업체 근로자의 근무 조건), 제품 및 서비스(예: 그들의 안전 또는 접근성)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GRI는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이해관계자라고 정의한다. 기업과 같은 조직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로는 사업파트너, 소비자, 고객, 직원과 기타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 조직, 주주와 기타 투자자, 공급업체, 노동조합 및 취약계층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된다. 여기서 이해(Stake)란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권(Human Rights)은 국제법상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특별한 가치이다.

GRI 표준의 관점에서는 조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작업자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작업의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작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업 활동에 아직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과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미래 세대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까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교류는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은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을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즉,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해야 한다. 만약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신뢰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 조직(예: 비정부 조직, 노동 조합)이 대신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외에도 조직은 특정 문제 또는 상황의 전문가(예: 학계, 비정부 조직)와 협의하고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때로는 실제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지금은 영향이 없지만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실사(Due Diligence)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활동이 안전 위험(Safety Hazard)으로 이어지는 경우 위험으로 인해 다친 근로자는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이고, 아직 다치지는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근로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구제 조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실사(Due Di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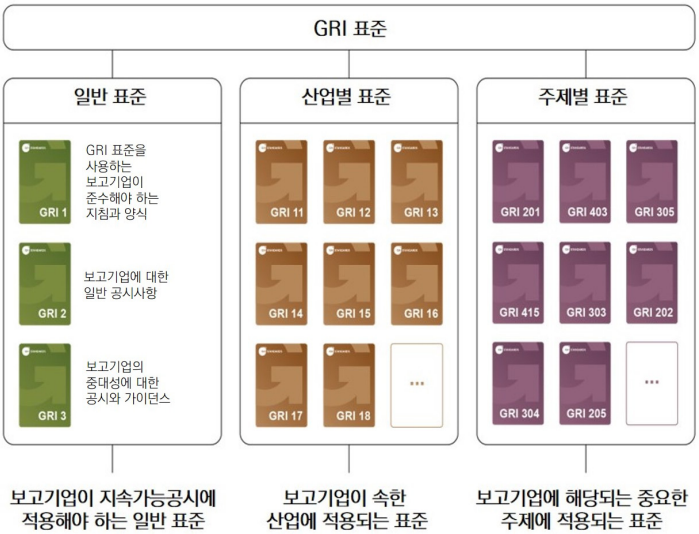
GRI 표준에서 실사(Due Diligence)란 조직이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식별, 방지, 완화 및 설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직은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해결해야 하며, 조직이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거나 기여했다고 식별한 경우 교정을 통해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에 관여하는 방식 – 기업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지 여부 또는 영향이 사업 관계에 의해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 - 에 따라 조직이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이 결정된다. 또한 조직이 영향의 개선을 위해 제공하거나 협력할 책임이 있는 지 여부도 결정된다.

기업은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하거나 협력을 통하여 발생한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계에 의해 조직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비록 기업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영향을 개선하거나 협력할 책임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3) GRI 표준의 체계

〈그림 Ⅱ-4〉 GRI 표준 모듈



자료: GRI Website

GRI 표준은 상호 연결된 표준들이 모듈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Ⅱ-4〉 참조). 이를 통해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GRI 표준의 모듈은 크게 일반표준(GRI 1-3), 산업별 표준(GRI 11-13), 그리고 주제별 표준(G201-418)으로 이루어진다.

GRI 1에서 3은 일반표준으로 기업 등 지속가능 공시를 위해 GRI 표준을 사용하는 조직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과 양식을 기술한다. GRI 1은 목적, 핵심개념, 보고요건과 원칙 등 기초(Foundation)가 되는 내용을, GRI 2는 GRI 표준을 사용한 공시에 담아야 할 일반적인 공시 사항(General Disclosures)을 그리고 GRI 3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Material Topics)을 판별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GRI 뒤에 두 자리 수 번호가 오면 GRI 표준 중 산업(Sector)별 표준을 의미한다. 현재 산업별 표준으로는 3개 표준이 나와 있다. GRI 11은 석유 및 가스 산업, GRI 12는 석탄 산업, 그리고 GRI 13은 농업, 수산업, 양식업에 각각 속한 기업들이 따라야 할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담고 있다.

GRI 뒤에 201부터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가 붙으면 GRI 표준 중 주제(Topic)별 표준을 의미하며 세 자리 중 100단위 자리로 경제(200단위), 환경(300단위), 사회(400단위)별 주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GRI 305의 주제는 배출량으로 이 표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탄소, 메탄, 질소화합물 등 7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에 다른 영향을 공시한다.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 2, 3별로 GHG Protocol의 일반보고기준(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과 가치사슬보고기준(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맞추어 보고 및 공시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4) GRI 표준의 지속가능성 영향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연결성

GRI 표준을 통해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을 포함한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영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이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기업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운영 또는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 재무적 성과에 결국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25] 예를 들어, 기업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가 확대되는 기조 속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비록 공시 시점에 재무적 중요성이 낮더라도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책 전환 등과 맞물려 결국 재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 등과 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장기적인 성공에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인권을 포함하여 경제,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업이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재무 및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의 영향과 관련된 재무위험과 사업기회를 식별하고 재무적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다시 재무제표에서 인식해

25) 영향 중요성이 시간에 걸쳐 재무적 중요성으로 환류되는 개념을 동태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이라고 함

야 하는 정보의 재무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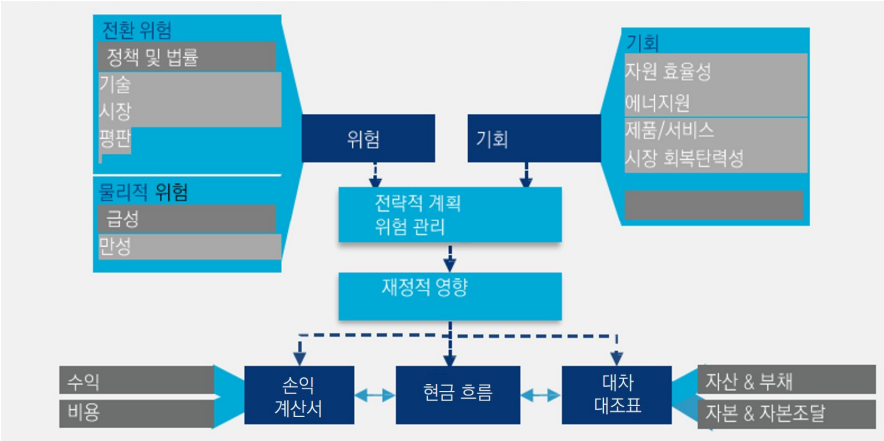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가 경제, 환경 및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재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 공시는 그 자체가 필요한 공익 활동으로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즉,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적 의미에 대한 고려와 무관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GRI 표준을 통하여 기업이 인식하게 된 모든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공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주제는 단지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

나. 기후 관련 재무공시(TCFD)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GRI 표준과 대비되는 공시기준으로 기업 재무공시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기후 관련 재무공시 작업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라 함)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살펴본다. GRI 표준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면, 재무공시의 관점에서는 지속가능 요소가 기업의 사업 관련 위험과 기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재무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TCFD의 재무공시 권고안은 다음 절의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기반이 되며 공시의 내용은 ISSB 지속가능 공시기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한다.

2015년 9월 회의를 마치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였고, FSB는 2015년 12월, TCFD를 조직하였다. TCFD는 은행, 보험, 자산운용, 연금 대형 비금융회사 회계 및 컨설팅 회사와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금융부문과 국가에 걸쳐서 적용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 개발과정에서 금융산업 전문가 수백 명과 인터뷰,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16년 4월,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6월, TCFD 권고안의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그림 Ⅱ-5〉 TCFD 체계: 기후 관련 위험, 기회 및 재정적 영향



자료: TCFD(2017), 공인회계사회 번역을 재인용함

TCFD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현행 증권거래 규제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의 연장선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산 소유자와 운용사가 TCFD의 권고 사항을 구현하고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불러오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Impacts)에 초점을 맞춘 재무공시를 권고하였다.

TCFD에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영향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자본 및 자본조달 형태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업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즉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여 기후 관련 재무공시에 반영해야 한다(〈표 Ⅱ-1〉 참조).

〈표 Ⅱ-1〉 TCFD 권고안에서 재무적 영향의 주요 범주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익 • 전환 및 물리적 위험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수익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고 새로운 수익을 향상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식별함 • 특히 주어진 배출량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탄소 가격 산정의 출현 및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향을 받는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가격 책정이 비즈니스 수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자산 및 부채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기술 및 시장 역학의 변화로 인한 공급 및 수요 변화는 조직의 자산 및 부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수명이 긴 자산 및 관련 유보금의 사용은 기후 관련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자산과 부채, 특히 보유기간이 긴 자산에 대한 잠재적인 기후 관련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새로운 투자, 구조 조정, 감가 상각 또는 상각을 요구하는 현재와 약정된 미래 활동과 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함
비용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부분적으로 조직의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비용 공급업체는 기후 관련 문제로 인한 비용 변화에 더 탄력적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유연할 수 있음 • 기업은 비용 구조와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잠재력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음 • 투자자의 자본 지출 계획 및 자금 조달에 필요한 부채 또는 자본 수준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계획의 회복력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상당한 수준의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을 이동하는 조직의 유연성과 자본 시장의 의지임. 이러한 계획의 투명성은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거나 자금조달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음	자본 및 자본조달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는 ① 감소된 운영 현금흐름을 보상하기 위해 부채 수준을 늘리거나 새로운 자본 지출 또는 R&D를 통해 조직의 부채 및 자본 구조를 바꿀 수 있음, ② 새로운 부채를 늘리거나 기존 부채를 재융자하거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차입 기간을 줄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 영업 손실, 자산 상각 또는 투자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 조달 필요성으로 인해 자본 및 유보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자료: TCFD(2017)

이를 위하여 권고안은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를 주제로 각 주제에 대한 일반적 권고(Recommendation)와 세부내용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Recommended Disclosure)를 담고 있다(〈표 Ⅱ-2〉 참조).

〈표 Ⅱ-2〉 TCFD 권고안의 핵심내용

핵심요소	일반적 권고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	a)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 b)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관련 내용을 설명
경영전략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관련 내용을 설명 c) 2℃ 및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
위험관리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c)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
측정 및 목표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 위험 공시 c)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 설명

자료: TCFD(2017); 이승준(2021)에서 재인용함

먼저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공시한다. 이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경영전략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 그리고 2℃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한다. 세부적으로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 그리고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측정과 목표에 대한 일반적 권고에서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한다. 세부적으로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를 하고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26]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며,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2017년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TCFD의 권고 내용에 맞추어 공시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TCFD의 2022년 현황 보고[27]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TCFD 권고안을 사용하는 상장기업의 70%가 재무공시에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보고나 연차보고서에 담았으며 이는 2017 회계연도의 4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의 기업들이 권고안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60%의 유럽 기업들이 11개의 권고내용을 모두 공시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36%, 미주 지역 기업들의 29%보다 TCFD에 따른 공시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TCFD 권고안은 각 회사조직에서 이들 권고 내용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역에 공통된 지침(Guidance)과 금융권역 및 비금융권역을 위한 각각의 보충적 지침도 함께 담고 있다. 금융권역을 위한 보충적 지침은 은행(대출), 보험(위험인수), 자산관리, 자산소유(투자)로 나누어 제시되며, 비금융권역을 위한 보충적 지침은 에너지, 교통, 자재 및 건축, 농림식품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이밖에 산업에서도 해당되는 사업모형과 기후위험에 맞추어 적절한 공시가 권고된다.

---

26) Scope 1은 모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2는 구입한 전기, 열, 증기의 소비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3는 Scope 2 외 모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로 예를 들어 업무위탁한 회사를 통한 온스 배출임

27) TCFD(2022)

다. 지속가능 공시와 지속가능 재무공시

GRI 표준과 TCFD 권고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결국 기업과 지속가능성 상호 간 영향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방향(Inside Out 관점)의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과 지속가능성에서 기업 방향(Outside In 관점)의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GRI에서는 앞서 GRI 표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향 중요성이 결국 재무적 중요성으로 환류되는 동태적 중요성 관점으로 영향 중요성의 일부는 결국 재무적 중요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1) 중요성 기준(단일 vs. 이중 중요성)

기업 공시는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각종 성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재무공시에는 IASB의 IFRS나 미국 FASB의 GAAP과 같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표준이 있다. 재무공시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 공시는 재무공시와는 별도로 투자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재무적 중요성 개념은 재무공시와 이를 위한 회계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을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다.[28]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보고서와 다르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중요성을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29]

한편 미국 대법원은 어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공시되었을 경우, 투자 결정이 의미 있게 달라질 상당한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30] 미국 SEC에서는 '중요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

28) 자본시장법 제47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로 대체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29)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30) TSC Industries,Inc. v. Northway, Inc., 426 U.S. 438 1976, Christensen et al.(2021)에서 재인용함

람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길 상당한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이 있는 내용을 중요하다고 정의한다.[31]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정의의 연장선에서 지속가능 공시를 투자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위험과 기회)을 주로 공시하는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재무요소가, 예를 들면 기후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전환 과정에서 결국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중요성 공시에 충실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를 TCFD는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으며,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라는 글로벌 기준으로 초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단일 중요성 공시기준을 따르는 경우, 추가적인 기업의 규제부담이나 감독자의 감독부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투자자를 넘어 이해관계자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공시보다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지속가능성 정보에서 재무정보와 동일한 기본 목표, 즉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공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미치는 영향(Impact)도 함께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공시할 지속가능 성과와 관련된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성은 재무적 중요성과 영향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 공시가 지속가능 요소로부터 기업이 받는 위험과 기회와 함께 기업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투자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가능 공시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이중 중요성'을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핵심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지속가능 영향(Impact)은 시간이 지나며 재무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동태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 개념으로 설명한다.[32] 기업이 외부효과를 공시하도록 하면,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까지 기업경영에 내부화하려는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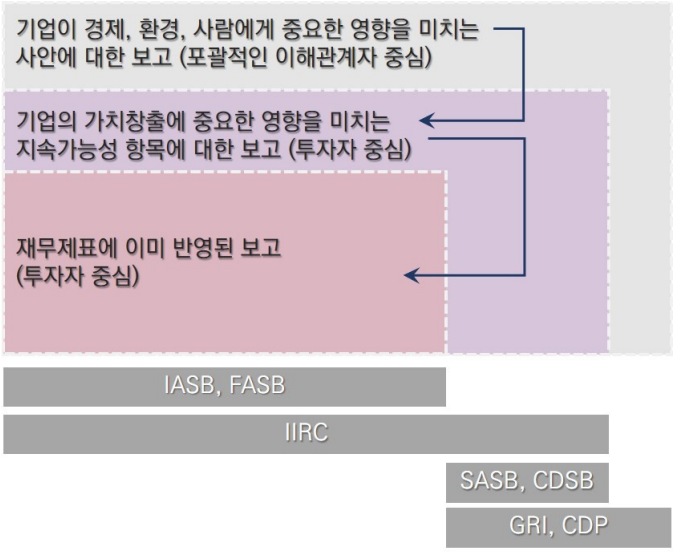
---

31) "[a] matter is 'material' if there is a substantial likelihoo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consider it important."(SEC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99 – Materiality, 1999)

32) EFRAG(2021)

2)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수렴 노력

〈그림 Ⅱ-6〉 여러 공시기준의 중요성 차이



자료: CDP et al.(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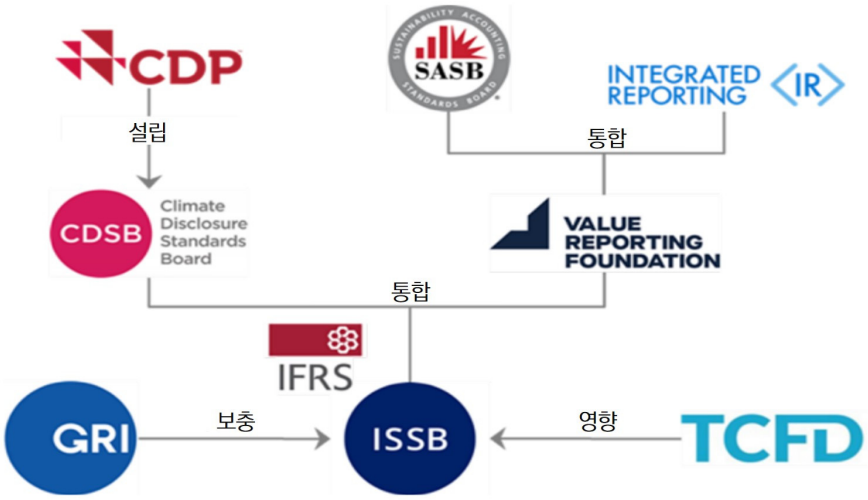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개념의 차이점을 수렴시키기 위하여 GRI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 진영과 IFRS 등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진영 간에 협력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된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이 모여 2020년 9월에 발표한 공동작업 의향서[33]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 참여기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성 관련 개념의 차이는 〈그림 Ⅱ-6〉이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목적도 지속가능성 및 재무공시와 관련하여 다양하다. IFRS 재단은 기업의 투명한 재무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설립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만든 조직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미 2021년 11월 3일 COP26 기후 회의에서 ISSB의 창설이 발표되었을 때 IFRS 재단 이

33) CDP et al.(2020)

사회는 IFRS 재단,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 및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의 통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IFRS 재단은 2022년 1월 31일 CDSB를 통합하고 2022년 8월 1일에는 가치보고재단과의 통합을 완료한다. 가치보고재단은 앞선 2021년 6월 10일,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가 지속가능성 보고의 재무보고 통합을 진전시키고자 두 기관을 합병하여 만들어졌다(〈그림 Ⅱ-7〉 참조).

〈그림 Ⅱ-7〉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수렴과 관련 조직의 통합



자료: Kirkland and Ellis(2022)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며, SASB 표준을 통해 기업은 비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한다.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는 기후 관련 공시가 재무공시와 같은 위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만들고 조정하는 기업 및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의 국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투자자를 위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를 지향한다.

CDP는 기업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숲을 보호하도록 이끄는 기후행동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이며 앞서 살펴본 GRI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이들은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를 지향하여 왔다.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는 규제 기관, 투자자, 회사, 표준 제정자, 회계 전문가, 학계 및 NGO의 글로벌 연합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의 재무공시 통합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 보고체계는 기업이 운영되는 상업적,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및 전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ISSB는 통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설정 프로젝트 및 요건에 부합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업이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계속 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기업 지배 구조 및 보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지침으로 원칙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최근 ISSB는 2월 16일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초안을 확정하며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과 관련하여 IFRS에서 만든 기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IFRS S1을 사용하더라도 기업은 GRI 표준 또는 ESRS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표준의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IFRS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 다른 표준을 참조하는 접근 방식의 선례라고 할 수 있다.

2.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가. ISSB 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

1) 개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라 함)는 2021년 11월 말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2년 3월 말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글로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23년 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ISSB의 공시기준 체계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일반 공시 요건(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이하 'IFRS S1'이라 함)'

및 '기후 관련 공시 사항(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이하 'IFRS S2'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기업이 IFRS 회계기준이 아닌 GAAP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지속가능성 보고와 공시는 IFRS S1, S2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IFRS S1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34]가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등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IFRS S1은 모든 공시 내용에 대한 핵심 항목(Core content)을 설정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정보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한다. 핵심 항목에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가 속하며, 기업의 공시 내용은 해당 핵심 항목을 포괄해야 한다.

IFRS S2의 목적은 보고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가업가치를 평가하고 기후위기 및 전략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해하며 기업의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공시 항목은 IFRS S1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적이 포함된다. 동 보고의 목적과 핵심 공시 항목은 IFRS S1과 유사하나, 범위를 '기후'로 한정한다는 데에서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표 Ⅱ-3〉 IFRS 지속가능 공시기준(초안) 체계 요약

지속가능 일반 공시기준(IFRS S1)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	
핵심 항목	일반 항목	공시 항목	부록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 보고 기업 • 연계된 정보 • 공정한 표시 • 중요성 • 비교 정보 • 보고 빈도 • 정보의 위치 • 추정·불확실성의 원천 • 오류 • 준수 문구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 산업별 공시 요건[1)]

주: 1) 대부분 SASB 기준 차용, SASB와 다른 부분은 파악을 용이하게 위해 별도로 표시
자료: IFRS(2022a); IFRS(2022b)

34) IFRS는 ISSB 공시기준의 주요 이용자로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대출기관을 상정하고 이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설계함

2) 일반 공시기준(IFRS S1)의 주요내용

IFRS S1은 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 '핵심 항목(Core contents)'과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features)'을 제시한다. IFRS S1은 보고기업이 핵심 항목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지표 및 목표에 중점을 두고 중요사항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서 정보의 위치, 연계된 정보, 보고 빈도 등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준수 사항을 제시한다.

가) 핵심 항목

IFRS S1의 핵심 항목 중 '지배구조'에서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상의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아래 일곱 가지 공시 내용을 요구한다.

〈표 Ⅱ-4〉 IFRS S1 핵심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혹은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개별 인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이사회 권한(Mandate), 기타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
	③ 의사결정기구가 해당 전략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
	④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가 해당 사항을 보고 받는 방법과 빈도
	⑤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기업 전략 및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할 때 해당 사항을 고려하는 방법
	⑥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
	⑦ 해당 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경영진의 지위 혹은 위원회에 위임되었는지 그 여부와 이들에 대한 감독방법도 포함)

자료: IFRS(2022a)

IFRS S1의 다음 핵심 항목은 '전략'으로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다. '전략'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따른 아래 다섯 가지 공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표 Ⅱ-5〉 IFRS S1 핵심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단기, 중기, 장기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기회 요소
	②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로 미치는 영향, 재무계획 수립 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
	⑤ 사업모형을 포함한 전략의 회복력(Resilience)

자료: IFRS(2022a)

이와 더불어 IFRS S1은 전략과 관련하여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② 전략과 의사결정, ③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그리고 ④ 회복력 등 네 가지 요소를 나누어 세부 공시 내용을 요구한다.

〈표 Ⅱ-6〉 IFRS S1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현금 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② 기업이 정의하는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 및 해당 정의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및 자본 배분 계획과의 연계성 ③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끼친 영향 혹은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④ 가치사슬 중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위치
전략 및 의사결정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상황 ②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이전 보고 기간 공개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③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간 Trade-off(예: 새로운 사업장 신설 시 환경에 영향과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 간 상충관계)

〈표 Ⅱ-6〉 계속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요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①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장 최근 보고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② 상기 위험 및 기회가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재무제표 상 보유자산 및 부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올 위험이 클 경우 관련 정보 ③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상태의 변동 ④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성과의 변동
회복력	①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② 기업 전략 및 현금흐름의 회복력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

자료: IFRS(2022a)

IFRS S1의 세 번째 핵심 항목인 '위험관리'의 공시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공시를 통해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는 해당 과정이 전체 위험관리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평가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프로파일과 위험관리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 '위험관리' 항목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따른 아래 여섯 가지 공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표 Ⅱ-7〉 IFRS S1 핵심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건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해당 사항을 식별하는 과정
	② 해당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기회와 관련	③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
	④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과 관련	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해당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가능한 경우 포함: 위험 관련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방법, 타 유형 위험과 비교하여 동 위험 우선시 방법, 데이터 등 인풋 변수, 과거 보고 기간 대비 과정 변경 여부)
	⑥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자료: IFRS(2022a)

IFRS S1의 마지막 핵심 항목인 '지표 및 목표'의 공시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표 및 목표' 공시를 통해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는 보고기업이 세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의 진척도와 더불어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고기업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보고기업이 '지표 및 목표'에 대해 공시할 때 첫 번째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의 진척도, 그리고 해당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만약 보고기업이 직접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표를 정의하는 방법과 해당 지표가 외부기관에 검증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탄소배출량 측정 등 계산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계산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한다. 세 번째로, 보고기업은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공시하고 네 번째로, 진척도가 측정되는 기준시점 및 목표 추진 방향과 중간 목표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사용되는 지표와 계산 방법은 일관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고기업이 지표나 목표를 다시 정의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왜 대체된 지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할 경우 이전의 수치와 다시 작성한 수치를 비교하여 공시해야 한다.

나) 일반 요구사항

① 보고기업

실질적으로 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일반 요구사항'은 먼저 '보고기업'에 대해 정의한다. IFRS S1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 주체인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보고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목적 재무보고가 연결기준이라면 지속가능 보고서 또한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측정 단위로써 사용된 특정 통화가 존재한다면, 보고기업은 지속가능 재무공시에서도 해당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Material)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표 Ⅱ-8〉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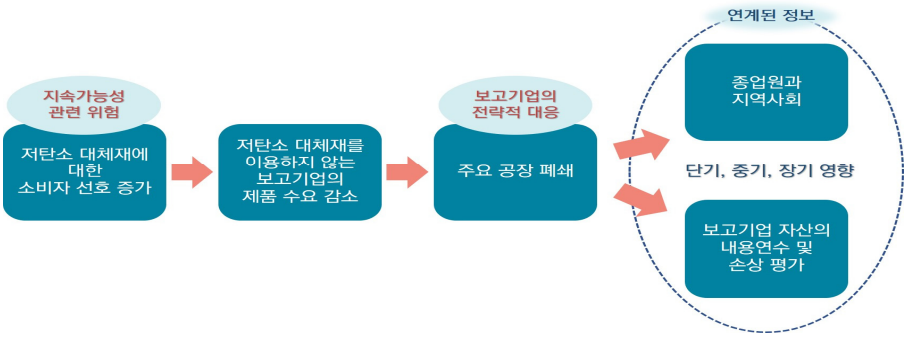
내용
① 기업 및 공급업체의 고용 관행, 판매상품의 포장재 관련 낭비량이나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건 ②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희소한 수자원에 의존하는 생산 시설 등) ③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고기업 통제하의 투자(공동기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활동 자금 지원 등) ④ 자금의 원천

자료: IFRS(2022a)

② 연계된 정보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 간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위험과 기회가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정보 간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및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 및 목표에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보고기업이 천연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공급망 내 변화가 일어난다면, 공급망 내 변화가 어떻게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변화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및 투자에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재무제표의 정보와 특정 지표 및 목표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림 Ⅱ-8〉 일반 요구사항 중 '연계된 정보' 공시 예시



자료: IFRS(2022a)

③ 공정한 표시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공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하며 비교 및 검증이 가능하고 적시성을 가지며 공시를 읽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 재무공시 IFRS S1과 IFRS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서(IFRS S2 등)를 함께 적용할 때 IFRS S1 공시에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함께 통합시키거나 서로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여 공시의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정보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보를 통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물 사용과 관련한 공시를 할 때 기업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용한 물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한 물을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④ 중요성

보고기업은 '중요성'에 대한 판단하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성'은 '특정 공시 내용을 누락 혹은 왜곡하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는 경우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혹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시정보가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매 보고 기간 말에 상황과 가정의 변동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IFRS S1은 보고기업이 속한 국가의 관할법과 규정으로 인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수 없는 경우 보고기업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보고기업은 해당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비교정보

보고기업은 모든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지표에 대해 전기 보고서와의 비교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보고기업의 활동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한 공시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상황은 보고기업이 전기에 보고한 정보와 다른 정보를 비교하여 보고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기업은 전기에 보고한 값과 수정한 값을 기재하고 해당 값을 수정한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당기 보고서와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표나 목표에 새로운 정의를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소급하여 재작성하는데 적합한 과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다.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보고기업은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⑥ 보고 빈도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일반목적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와 보고 사이의 간격은 재무제표의 간격과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의 종료시점을 변경하여 12개월보다 길거나 짧은 주기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 보고 주기가 길어진(혹은 짧아진) 이유,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기재된 모든 값이 비교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기업이 실무적인 이유로 52주의 보고 기간을 선호한다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기업이 속한 국가나 영향을 받는 규제기관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보고기업은 보고의 적시성과 비용 제약을 고려하여 전기에 보고한 정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보고에 비해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중간보고는 새로운 정보,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하지 않는다. IFRS S1 초안은 보고기업이 중간보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한다(즉, 중간보고를 금지하지도, 권장하지도 않는다).

⑦ 정보의 위치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해야 하고 각국의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35]에 공시할 수 있다. 여기서 경영진 의견서는 경영진의 진단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운영 및 재무 검토(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통합보고(Intergrated report), 전략보고서(Strategic report) 등 다양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명확히 식별가능하며 추가 정보로 인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고기업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상호참조(Cross-reference)를 통해 별도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도 할 수 있다. 상호참조되는 정보는 동일 기간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동일 시점에 공개해야 하며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상호참조 위치 및 접근방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건에 따라 기업이 공통 항목을 공시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중복은 피해야 한다.

⑧ 추정 및 불확실성의 원천

보고기업은 지표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 추정상 불확실한 공시 지표를 식별하고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Sources)과 특성,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재무정보 공시에 사용된 데이터와 가정은 재무제표의 데이터와 가정에 가급적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IFRS S1은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즉, 보고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잠재적인 미래 사건이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 시점, 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전체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

---

35) 경영진 의견서(Management commentary)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충하며,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업의 가치창출 역량 및 현금흐름 창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⑨ 오류

보고기업은 전기에 작성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전기 공시 내용상 오류의 특성과 전기 공시 내용에 대해 가능한 수준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오류에는 계산오류, 지표 및 목표 적용 오류, 사실 간과, 해석의 오류 및 부정이 포함된다. 만약 오류 내용을 수정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오류 수정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해야 한다. 당기에 발생한 오류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발행에 대해 승인받기 전에 수정해야 한다. 만약 보고기업이 표시된 모든 과거기간의 오류가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부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비교정보를 재작성해야 한다.

⑩ 준수 문구

보고기업은 IFRS S1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고 해당 사실을 명시적인 요건 준수 의견서(Unqualified statement of compliance)에 포함해야 한다. IFRS S1은 만약 보고기업이 속한 현지 법규가 특정 정보의 공시를 금지한다면, 보고기업이 특정 정보를 완화하여 공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기후 관련 공시기준(IFRS S2)의 주요내용

IFRS S2는 TCFD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측면에서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IFRS S2의 접근방식은 TCFD 권고안과 일치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가) 공시 항목

IFRS S2의 공시 항목은 IFRS S1의 핵심 항목과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IFRS S2가 S1과 다른 점은 IFRS S1은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S2는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에 집중한다.

〈표 Ⅱ-9〉 IFRS S2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혹은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개별 인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이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이사회 권한(Mandate), 기타 정책에 반영되는 방법
	③ 의사결정기구가 해당 전략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
	④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감사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등)가 해당 사항을 보고 받는 방법과 빈도
	⑤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기업 전략 및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할 때 해당 사항을 고려하는 방법
	⑥ 의사결정기구와 관련 위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감독하는 방법
	⑦ 해당 사항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경영진의 지위 혹은 위원회에 위임되었는지 그 여부와 이들에 대한 감독방법도 포함)

자료: IFRS(2022b)

〈표 Ⅱ-10〉 IFRS S2 공시 항목 중 '전략'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단기, 중기, 장기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및 기회 요소
	②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로 미치는 영향, 재무계획 수립 시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법
	⑤ 사업모형을 포함한 전략의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

자료: IFRS(2022b)

〈표 Ⅱ-11〉 IFRS S2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사항

구분	전략 관련 세부 공시 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설명과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현금 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② 기업이 정의하는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 및 해당 정의와 기업의 전략적 계획 및 자본 배분 계획과의 연계성 ③ 식별된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 여부
전략 및 의사결정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상황 및 기후 관련 목표 달성 계획 • 사업모형 변동사항 및 예상되는 변동사항 • 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법 ② 기후 관련 목표 정보 • 목표 검토 절차 • 기업 가치사슬 내 배출량 감축 목표 예상 달성 수준 •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상쇄 활용 계획 ③ 상기 항목과 관련하여 이전 보고 기간 공개된 계획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정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①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장 최근 보고된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② 상기 위험 및 기회가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재무제표상 보유자산 및 부채에 중요한 변동을 야기할 위험이 클 경우 관련 정보 ③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상태의 변동 ④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예상되는 재무성과의 변동 ⑤ 상기 항목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공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
기후 회복력	① 기후 회복력 분석 결과 • 전략 관련 시사점 • 기후 회복력 분석 시 기업이 고려한 중대한 불확실성 • 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후 관련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전략 및 사업모형을 변경할 수 있는 역량

자료: IFRS(2022b)

〈표 Ⅱ-12〉 IFRS S2 공시 항목 중 '위험관리'에 대한 공시 요건

전제	공시 요구사항
기후와 연관된 위험 및 기회와 관련	① 해당 사항을 식별하는 과정
	② 해당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
기후와 연관된 기회와 관련	③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시하기 위한 과정
	④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기후와 연관된 위험과 관련	⑤ 위험관리 목적을 위해 해당 사항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가능한 경우 포함: 위험 관련 가능성과 영향 평가 방법, 타 유형 위험과 비교하여 동 위험 우선시 방법, 데이터 등 인풋 변수, 과거 보고기간 대비 과정 변경 여부)
	⑥ 해당 사항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과정이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자료: IFRS(2022b)

IFRS S2의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는 IFRS S1과 유사하지만, 지표 및 목표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측면을 제시한다. 보고기업은 '지표 및 목표' 부문에서 목표 달성 정도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산업 종류나 사업 모델과는 무관한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항목에 따른 정보와 더불어 공시 주제와 관련 있으면서도 보고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보고기업의 사업 모델 및 주요 사업과 공통 특성을 지닌 산업의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이 목표 달성률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와 기후 관련 위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목표 또는 기후 관련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가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표 Ⅱ-15〉 참조).

IFRS S2 '지표 및 목표'와 관련하여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이용자가 보고기업이 기후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고 감독하며 관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IFRS S1과 같이 IFRS S2의 이용자는 '지표 및 목표'를 통해 보고기업이 세운 목표의 진척도와 더불어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보고기업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표 Ⅱ-13〉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항목

지표	공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1.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따른 Scope 1, 2, 3의 배출 총량(절대치)(CO_2-e(t)) 2. Scope 1, 2, 3별 배출량 집약도(Intensity) 3.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등에 대해 1.에서 공시한 각각의 Scope 1 및 2 배출 총량 4. 관계기업, 조인트 벤처,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Affiliates)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5. 4.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이유가 지표 및 목표의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6. 1.에서 공시한 Scope 3 배출량의 경우: 1) 측정에 있어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배출량을 포함 2) Scope 3 배출량 카테고리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배출량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를 공시 3) Scope 3 배출량 측정에 가치사슬 내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기준을 설명 4) 6. 3)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술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기후 관련 기회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기업의 활동 또는 자산의 금액 및 비율
자본 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배정된 자본지출, 자본조달 또는 투자 금액
내부 탄소가격	① 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 톤당 가격 ②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방법
보수	① 기후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당기 인식된 경영진 보수 비율 ②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 IFRS(2022b)

〈표 Ⅱ-14〉 기후 관련 목표별 공시 항목

내용
① 목표 달성을 위한 진척도 평가에 활용된 지표 ②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사항 ③ 목표의 절대량 또는 집약도(원 단위) ④ 목적(완화, 적응, 섹터 및 과학 기반 이니셔티브 준수) ⑤ 목표의 최신 기후 관련 합의 준수 여부 및 제3자 검증 여부 ⑥ 산업별 탈탄소 접근법에 기반한 목표인지 여부 ⑦ 목표 적용 기간 ⑧ 기준 연도(진행상황이 측정되는 기준연도) ⑨ 중간 목표

자료: IFRS(2022b)

나) 부록

ISSB의 IFRS S2 부록은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누어져 있다. 파트 A에는 IFRS 지속가능 공시규제 내에서 나오는 개별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파트 B는 산업별 공시 요건을 다룬다.[36] 부록의 내용 대부분은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차용하고 SASB와 다른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별 공시 요건을 다루기 이전에 ISSB는 산업전반(Cross-industy)에 걸친 지표 항목을 제시한다(〈표 Ⅱ-13〉 참조).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모형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FRS S2는 산업별로 기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공시 주제와 관련된 지표는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은 산업에 대한 설명, 공시 주제, 지표, 세부 프로토콜, 활동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FRS S2의 관련 지표들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보고기업은 해당 기준에서 다루는 산업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모든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여러 산업군에 걸쳐 있는 경우 복수의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기반 요구사항은 SASB 기준을 토대로 산업군 분류, 공시 주제, 지표 및 테크니컬 프로토콜, 활동 지표 등 일관적으로 SASB의 기준을 따른다. SASB 기준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요구사항 하위 항목이 수정되었다는 점과 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 및 촉진 배출량(Facilitated Emission)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 부문 4개 산업군에 공시 주제 및 관련 지표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중대한 위험 및 기회의 식별을 위해 공시 담당자는 산업기반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기업은 정량적 정보 공개를 위한 산업기반 요구사항이 산업전반 지표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해야 한다.

36) 2023년 6월 발표된 IFRS S1, S2 최종안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담은 Part A, 해당 기준 적용 지침과 IFRS S2에서 제시하는 산업기반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Part B, 최종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Part C로 나누어져 있음. 산업별 지표는 초안에 따른 '부록'이 아닌 최종안에서 'Part B'에 속함

〈표 Ⅱ-15〉 산업기반 지표 예시 - 보험산업

〈보험산업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및 지표〉

공시주제	지표	분류	측정단위
투자 관리 과정 내 ESG 통합	투자 관리 과정 및 전략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환경 책임을 장려하는 보험 상품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순 보험료	정량적	보고통화
	건강 및 안전을 장려하거나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상품(혹은 상품의 특성)에 대한 논의	논의 및 분석	n/a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상품의 예상 최대 손실(PML)	정량적	보고통화
	사고 유형 및 지리적 분류에 따른 1. 모형 내 자연재해 및 2. 모형 외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손실 총액(재보험 순 및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환경 위험을 1. 개별 계약 인수 프로세스 및 2. 기업 수준 위험 및 자본 적정성관리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전환 위험[1]	1.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2. 모든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3. 각 탄소 관련 산업에 대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보고통화, %
	금융 배출량 산식에 포함된 총 익스포저 비율	정량적	%
	자산 등급에 따라 각 산업별 지표: 1. 절대적 총량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3) Scope 3 배출량 2. 총 익스포저(예: 금융 배출량)	정량적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_2e), 보고통화
	자산 등급에 따라 각 산업별 지표: 1. 1) Scope 1 배출량, 2) Scope 2 배출량 및 3) Scope 3 배출량의 총 배출 강도 2. 총 익스포저(예: 금융 배출량)	정량적	물리적 혹은 경제적 출력 단위당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_2e)
	금융 배출량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	논의 및 분석	n/a

〈보험산업 활동 지표〉

활동지표	분류	측정단위
상품별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건수: 1. 재산 및 상해보험, 2. 생명보험, 3. 재보험	정량적	건

주: 1) 2023년 6월 발표된 최종안 Part B에서 '전환 위험' 지표는 공시에서 예외됨

자료: IFRS(2022b)

나. ISSB 지속가능 공시 초안의 주요 쟁점사항

1)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ISSB의 지속가능 재무공시 공개초안은 지속가능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ISSB가 사용하는 '중요성(Materiality)'의 의미는 IFRS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정보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주요 이용자(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 예상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즉, IFRS S1과 S2 모두 단일 중요성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공시를 지향한다. 하지만 공시 초안 확정을 위한 지난 2월의 회의까지도 이중 중요성 관점의 GRI 표준과 유럽의 ESRS의 준용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시기준이 글로벌 지속가능 재무공시의 기준으로 정착하기까지 단일 및 이중 중요성 관점의 수렴에 보다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보고의 형태

ISSB는 보고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의 형태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표준을 제안했다. 보고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 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각국의 규정이나 감독당국의 요구사항 등)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반목적 재무보고 내 경영진 의견서 등의 형태로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일반목적 재무보고와의 상호참조를 통한 별도의 보고서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ISSB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양 보고서를 동시에 보고하는 것에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재무제표 발행 후 일정 기간에 한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과규정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은 Scope 3 관련 데이터 집적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ISSB는 Scope 3 공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공시의 필요성에는 이사회 전원이 동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배출량이 Scope 3에서 비롯되는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 등 금융기관은 부분적으로 파생상품을 제외한 Scope 3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s)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Scope 3 시행일 연기와 회피조항(Safe harbor) 도입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IFRS S2 시행 이후 적어도 1년간은 Scope 3 공시를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ISSB는 Scope 3 배출량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으로 Scope 3 배출량 공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 ISSB에서 논의된 지속가능 공시 초안에 관한 보다 다양한 쟁점들은 부록과 〈부록 표〉를 참조 바란다.

3. 보험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기준

현재 논의되는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이며 그중에서도 Scope 3(가치사슬) 배출 관련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공시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Scope 1과 2는 반드시 공시하고 Scope 3의 경우 중요한 경우와 감축 목표를 정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공시의 경우 이에 대한 목표와 진척도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치사슬에 대한 배출량인 Scope 3의 경우, 배출량의 측정 방법과 데이터의 가용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 관련 배출량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까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논의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보험인수 배출량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가. PCAF 보험 관련 배출량(Insurance Associated Emissions) 보고기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는 금융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공시를 논의하고자 2015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2019년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다. PCAF는 특히 금융회사가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법론은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으로 파트 A-금융 배출량 표준(Financed Emissions Standard), B-촉진 배출량 표준(Facilitated Emissions Standard), C-보험 관련 배출량 표준(Insurance-Associated Emissions Standard)으로 분류된다. 파트 A 금융배출은 은행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배출량을, 파트 B 촉진배출은 자본시장을 통한 배출량을 다룬다. ISSB 공시 초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 배출량과 촉진 배출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보험 관련 배출량도 최근 발표된 기준에 따라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과정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금융 배출량과 보험영업 과정의 보험인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동시에 노출된다. 특히 보험산업에만 해당하는 보험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은 파트 C[37]에서 제시하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측정법에 따라 평가하고 공시한다.

1) 보험 배출량에 추가되는 공시원칙

PCAF는 보험회사의 보험배출 보고원칙으로 GHG 프로토콜의 Scope 3 공시원칙에 추가되는 사항을 명시(〈표 Ⅱ-16〉 참조)하였다. 이는 GHG 프로토콜의 Scope 3 Category 15 투자(Investement)가 금융배출 위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으로 PCAF는 금융배출과 차별화되는 보험관련 배출 특히 보험인수와 관련된 차별성과 이를 반영하는 분리 공시를 강조하고 있다. PCAF는 이러한 차별성의 근거로 보험금은 조건부 청구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고, 금융 부문에서는 투자대상을 투자자가 선택하지만 보험인수는 피인수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한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는 고객의 경제활동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며 이는 지분이나 대출 관계로 이루어지는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와 다르므로 자금

37) PCAF(2022)

조달 배출 및 보험 관련 배출 작업 흐름에 적용되는 기여 요인은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PCAF는 보험 관련 배출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GHG 프로토콜 기업가치사슬 회계 및 보고 표준의 Scope 3(투자)와 합치지 말고 분리하여 별도로 공시하도록 보고원칙에 보험배출 관련 추가 요구사항을 명기하였다.

온실가스 목록에서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은 모두 보험회사의 '다운스트림' Scope 3 배출이지만,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 계산의 산출물은 같지 않다. 따라서 금융과 보험 관련 배출량을 합치게 되면 이중 계상과 보고 사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반드시 분리하여 Scope 3 카테고리 15(투자)에 대한 보충적인 회계 주석으로 보고해야 한다.

〈표 Ⅱ-16〉 PCAF 공시 보험 관련 배출 추가 요건

Scope 3 요소에 대한 GHG 프로토콜 원칙	보험 배출 관련 PCAF의 추가 요구사항
완전성 • 스코프3 요소 경계 내 모든 GHG(온실가스) 배출원인과 관련 활동에 대해 설명. 모든 특정 예외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설명	인식 • 보험회사는 GHG 프로토콜의 '기업가치사슬(Scope 3) 회계와 보고 표준'에 정의된 스코프 3의 15(투자)에 따라 보험 관련 배출량을 별도 주석으로 설명 • 모든 한계나 제한 사항은 공시
일관성 • 시간에 걸쳐 유의미한 배출량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방법론을 이용 • 데이터, 방법, 시계열의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투명하게 문서화	측정 • 보험회사는 '위험 추적'과 PCAF의 방법론 및 지침을 고려하여 특정 보험상품 및 특정 부문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 • 데이터의 가용성 및 방법론이 허용하는 경우 회피되었거나 제거된 배출량도 측정 및 보고
관련성 • GHG 요소가 기업의 GHG 배출량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업 내·외부 사용자의 의사 결정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확인 • 기업 비즈니스 관계의 실질 및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한 요소의 경계를 설정	배출량 귀속 • 보험에 가입된 위험과 관련한 배출량에 대해 보험회사의 몫은 고객 또는 자산의 절대 배출량에 비례
정확성 • GHG 배출량의 정량화를 통해 실제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그 이하를 측정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축소 • 사용자가 공시 정보의 무결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성을 제고	데이터 품질 • 보험회사는 특정 보험상품 및 기본 자산 및 회사에 대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그 품질을 개선 •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출량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핵심 성과 지표(KPI)를 사용

〈표 Ⅱ-16〉 계속

Scope 3 요소에 대한 GHG 프로토콜 원칙	보험 배출 관련 PCAF의 추가 요구사항
투명성 • 명확한 감사 추적을 기반으로 모든 관련 문제를 사실적이며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 • 관련된 모든 가정을 공시하고 사용한 회계 및 계산 방식과 데이터 소스를 참조	공시 • PCAF의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측정에 대한 공시는 외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이용하는 보험회사가 파리 기후 목표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여부를 비교하기 위함

자료: PCAF(2022)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의 측정은 금융의 '자금 추적(Follow the Money)' 원칙이 아니라 '위험 추적(Follow the Risk)'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음은 금융과 보험 관련 배출량을 별도로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배출량에 대한 예시이다(〈표 Ⅱ-17〉 참조).

두 계산 모두 공식은 Σc 귀속계수c×회사배출량c 로 같다. 하지만 귀속계수는 금융 배출과 보험 관련 배출(기업성 보험) 계산 사이에서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금융배출량과 보험관련 배출량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관련 배출은 반드시 금융배출과 분리하여 보충적인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표 Ⅱ-17〉 금융배출과 보험관련배출의 차이 예시

자금 추적(Follow the Money)	위험 추적(Follow the Risk)
1. 피보험자 A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함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함	
3.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B사에 투자함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불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함
4. 회사 B는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함	4. 피보험자 A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함
5. 보험사는 기여 요인을 적용하여 회사 B의 범위 3 범주 15 배출량에서 자금 조달된 범위 1 및 범위 2 배출량을 설명함	5.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의 보험 관련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해당 적립금이 보험자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여 요인을 적용하여 해당 Scope 3 범주 15 배출량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
6. 귀속요인은 자금조달 유형 및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회사가 B사의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줌	6. 귀속요인은 제공되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 정책에 따라 청구가 발생한 경우 조건부 자본(보험금 지급)의 제공이 피보험자 A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활성화 효과'를 보여줌

〈표 Ⅱ-17〉 계속

시나리오(회사 A에 지분투자와 보험인수를 모두 하는 경우)	
• 회사 A에 대한 지분 투자는 $1m • 회사 A의 EVIC(현금 포함 기업 가치)는 $900m이고 연간 매출액은 $300m • 회사 A에 보험을 제공하여 보험회사가 얻은 총 보험료(GWP)는 보험 기간 동안 $1m이며, 이 계약의 보험금 상한은 $70m • A사의 Scope 1, 2 총배출량은 [20,000 tCO_2e]. 현재 범위 3 배출을 보고하지 않음	
금융 배출 계산	보험관련 배출 계산
$\sum \frac{\text{지분투자}}{\text{기업가치}} \times \text{회사배출량}$	$\sum \frac{\text{총보험료}}{\text{매출액}} \times \text{회사배출량}$
$\sum \frac{1,000,000}{900,000,000} \times 20,000$ = 22.22 tCO_2e	$\sum \frac{1,000,000}{300,000,000} \times 20,000$ = 66.67 tCO_2e

자료: PCAF(2022)

〈표 Ⅱ-18〉 보험관련 배출 포함 보험종목

분류	보험종목(LoB)	포함 여부
기업성보험 (원수보험 및 임의 재보험)	재산(Property) 예: 화재보험, 종합보험(Multi-peril)	포함
	배상책임·상해 예: 일반배상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책임 등	포함
	영업용 자동차보험(전 종목)	포함
	해상보험(배상책임, 선박보험)	포함
	항공보험(배상책임, 기체보험)	포함
	농작물보험(정책보험 제외)	포함
	무역보증(미지급과 정치적 리스크-원수보험만 적용)	포함
	구조화 무역보증(은행대출, 모기지 등의 미상환)	불포함
	보증보험	불포함
	엔지니어링 보험 예:건축 및 설치 종합보험	불포함
	기타 엔지니어링 보험 예:기계고장, 전자부품	포함
	기업성 생명 및 연금, 개인 상해	불포함
	기타 특종보험 예: 전문직·임원 배상책임, 근재보험	포함

〈표 Ⅱ-18〉 계속

분류	보험종목(LoB)	포함 여부
의무보험	-	포함 (해당 법령에 따라 적용)
공공기관	공공기관 보험계약 예: 중앙 및 지방 정부 보험 구매	불포함
개인보험종목	자동차(전 종목)	포함
	배상책임	불포함
	재산(Property)	불포함
	기타 개인보험종목 예: 여행자보험, 법률보험, 펫보험	불포함
	생명 및 건강보험	불포함
특약재보험 (특약과 유사한 임의재보험 포함)	전 종목	불포함

자료: PCAF(2022); NZIA(2023)

2) 보험종목과 배출량 산식

PCAF(2022)는 사용가능한 데이터 및 방법론을 고려하여 배출 관련 보고대상 보험종목으로 기업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보험종목 모두 보험 탄소배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귀속계수를 계산하여 배출량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유사하다.

기업성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회사배출량(Attribution factor×Company Emissions)으로 계산되며, 기업성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보험료를 수익(Revenue)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개인용 차량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포트폴리오 내 피보험 차량의 배출량(Attribution factor of portfolio×Emissions of insured vehicles within portfolio P)으로 계산되며, 자동차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 보험료를 차량 운영에 드는 총 비용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치사슬 중의 하나로 자동차의 운행에는 자동차 보험료 외에도 연료비, 정비료, 등록세, 감가상각, 주차료와 도로통행

료 등 다양한 운행 관련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 관련 배출량 계산을 위한 (산업) 귀속계수는 PCAF에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한 세분화된 시장의 귀속계수를 계산하여 제공하며 5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단, (산업) 귀속계수가 가용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귀속계수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PCAF에 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보험 관련 Scope 3 배출량 데이터의 한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특히 Scope 3 데이터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에서 산업이나 데이터 출처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보험 관련 Scope 3 데이터는 출처가 다양하고 이들을 수집, 처리 및 공표하는 기준도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보험회사가 고객사나 공급망 관련 Scope 3 배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함께 고객사와 공급망의 배출량 공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관련 Scope 3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배출량 관련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지속가능 공시에 인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각 보험종목별로 합리적으로 가용한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에 걸쳐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특정 피보험자, 보험종목 또는 피보험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험 관련 배출량을 계산할 때 고품질 데이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나, 데이터의 제약에도 보험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배출량 공시 방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정 또는 프록시 데이터라도 보험회사의 영업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가 집중된 분야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관련 경영전략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나. NZIA 보험관련 배출 목표설정 프로토콜 1.0

지난 2023년 1월에 발표된 NZIA(Net Zero Insurance Alliance) 목표설정 프로토콜(NZIA Target Setting Protocol)은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관련 넷제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에 관한 첫 번째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NZIA 소속의 각 보험회사는 이

프로토콜에 따른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에 따라 도출된 방법을 사용하여 넷제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NZIA 소속 보험회사는 본 프로토콜 발표 후 6개월 이내 또는 NZIA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각각의 첫 번째 개별 목표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 설정한 개별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의 세부 사항을 매년 독립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단, 반독점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넷제로 달성 방법을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상황에서 NZIA 회원은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NZIA는 UN 환경 계획(UNEP)의 지속가능한 보험 이니셔티브 원칙(PSI)에 따라 자발적으로 서명한 보험회사들을 말한다. NZIA 회원들은 파리협정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1.5°C의 온도 상승과 일치하도록 2050년까지 보험 및 재보험 인수 포트폴리오의 모든 운영 및 귀속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들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 보험회사 중에는 2023년 5월 현재,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등이 NZIA에 가입하였다.

UN 환경계획이 뒷받침하는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공시를 보다 투명하고 비교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정교화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보험회사 배출량 관련 공시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NZIA 소속 보험회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목표 기간(시간 지평), 배출 온실가스 종류, 배출 보험종목, 그리고 목표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이 프로토콜에 따른 목표 기간을 설정할 때는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를 참조[38]해야 하는데 SBTi는 기업에 대한 'net-zero'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Scope 1, 2 및 3 배출을 0 또는 적격한 1.5°C 경로의 글로벌 또는 산업 수준에서 넷제로 배출에 도달하는 것과 일치하는 잔여 수준으로 감소

2. 넷제로 목표 연도의 잔여(Residual) 배출량과 이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

38) SBTi(2023)

출량을 중화(Neutralize)

또한 과학기반목표 기업탄소중립 표준(SBTi Corporate Net-Zero Standard)은 탄소중립 목표 기간 설정을 위한 4가지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단기(Near Term) 과학기반목표는 1.5°C 경로에 따라 5~1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2. 장기(Long Term) 과학기반목표는 1.5°C 경로에 따라 단기 목표를 확장하여 2050년 이내에 잔여 배출량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3. 가치사슬 완화를 넘어서는(BVCM)[39] 목표는 가치사슬 밖에 있는 다른 조직의 배출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 등을 설정
4. 중화(Neutralization) 목표는 잔류 배출량을 대기에서 제거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넷제로 상태에 도달

1) 감축 목표 유형

NZIA는 감축목표를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참여, 3. 전환 (재)보장과 같은 3가지 차별화된 목표 범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5가지 목표 유형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2. 산업별 탈탄소화 목표(SBTi 방법), 3.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목표, 4. 집중(Focused) 참여 목표, 5. 전환 (재)보장 목표 등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표 Ⅱ-19〉 참조).

〈표 Ⅱ-19〉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의 감축 목표

목표 범주	목표 유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2. 산업별 탈탄소화 목표(SBTi 방법)
참여(Engagement)	3.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목표(SBTi 방법)
	4. 집중 참여 목표
기타	5. 전환 보험 목표

자료: NZIA(2023)

39) Beyond Value Chain Mitigation(BVCM) 목표에 대한 과학기반목표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가) 배출량 감축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배출량 감축 목표 범주에서 두 가지 가능한 목표 유형을 제안하며, 각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 중 하나를 독립적인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1.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유형(Overall Emissions Reduction Type)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자체의 보험 관련 배출 감축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

2. 산업별 탈탄소화 접근법(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은 개별 보험 포트폴리오의 물리적 탄소 집약도를 산업 수준에서 주어진 탈탄소화 경로로 수렴시킨다.

포괄적 배출량 감축 목표 유형은 보험회사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목표 수준을 정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산업별 접근법(SDA)은 보험회사가 산업별 탈탄소화 궤적에 초점을 맞추어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나) 참여(Engagement)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참여 목표 범주에서 두 가지 가능한 목표 유형을 제안하며, 각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이들 중 하나를 독립적인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1. 포트폴리오 커버리지 접근법(PCA)은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자체 과학기반목표(SBT)를 설정한 고객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2. 집중 참여 목표 유형은 보험회사가 고객사의 전환 계획 및 탈탄소화 전략과 관련하여 참여한다.

두 가지 참여 대상 유형 간에는 두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첫째, PCA는 기업고객 포트폴리오에 적합하지만 집중 참여 대상 유형은 기업 및 개인 종목의 고객 모두에게 열려 있다. 둘째, PCA의 성공 척도는 '결과 기반'이다. 즉,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자신의 과학기반목표를 설정한 고객사의 수가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집중 참여 목표 유형의 경우 성공은 결과 또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노력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즉, 집중 참여 목표 유형에서 성공은 결과에 반드시 좌우되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는 두 목표 유형 모두에서 고객사(및 해당 산업 부문)의 전환 여정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전환 과정에서 각 고객 및 산업 부문이 직면하는 특정 문제를 인식하고 맞춤형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기타 목표: 전환 보험 목표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은 '기타 목표' 범주 아래에 넷제로 전환의 기회 측면에서 추가적인 목표 유형을 제안한다. 보험회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후자에 기여할 수 있다. 전환 보험 목표 유형을 선택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기후 솔루션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체 목표를 독립적으로 설정한다.

'기후 솔루션'은 다른 환경 또는 사회적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완화 또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 모두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재보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전환 보험 목표 유형은 기업성 보험종목과 개인종목으로 현재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될 수 있다.

2) 배출가스 종류 및 범위

NZIA 목표설정 프로토콜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는 모든 유형의 온실가스(GHG)[40]에 적용된다. 보험회사는 의미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 프로토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할 때 모든 관련 유형의 온실가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 관련 배출(Insurance Associated Emissions; IAE), 즉 GHG 프로토콜의 기업 표준 정의에 따른 Scope 3/카테고리 15/보험인수[41]와 관련된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자체적 운영(Scope 1, 2, 3/ 카테고리 1~14) 및 자산운용(범위 3/범주 15/투자)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배출량은 이 프로토콜의 범위를 벗어나며, 다른 관련 프로토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40) '관련 GHG'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의무화되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따라 국가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7가지 가스로 간주함.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 및 삼불화질소(NF_3)임. 이들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개인 또는 회사가 생산하는 기본 배출량을 나타냄. 모든 GHG는 일반적으로 'CO_2 등가물(CO_2e)'로 보고함

41) 보험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은 범위 3 카테고리 15(투자)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들은 '금융 배출(Financed Emissions)'과 합산되어서는 안 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Scope 1, 2 배출량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데이터가 허용하고 의미있는 경우에는 IAE 감소 목표에서 피보험자의 Scope 3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및 금융회사의 탄소배출 관련 보고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니셔티브인 PCAF 등과 같이 인정되고 일관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회계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3) 보험종목과 산출식

보험회사는 최소한 모회사나 그룹 단위에서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프로토콜 버전 1.0은 보험 관련 배출(IAE) 방법론이 존재하는 보험종목(Line of Business)에 적용할 수 있다. NZIA 목표 설정 프로토콜 버전 1.0의 보험종목의 범위는 보험 관련 배출량 계산을 위해 PCAF(2022.11)에서 발표한 보험 관련 배출의 보험종목의 범위와 일치한다(〈표 Ⅱ-18〉 참조).

따라서 해당되는 보험종목은 PCAF(2022)에서 설정한 대로 기업성 보험과 가계성 보험 중에서 자동차보험, 그리고 기업성 보험 중 재보험은 임의재보험만 포함되며 특약재보험 및 이와 유사한 임의재보험은 제외된다. NZIA는 목표 설정을 위한 추가 보험종목을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프로토콜의 향후 버전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귀속계수(Attribution Factor)는 피보험 자산이나 회사의 생산요소로서 보험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성 보험의 귀속계수는 수입보험료를 수익(Revenue)로 나누어준 값이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수입 보험료를 차량 운영에 드는 총 비용으로 나누어준 값이다. 따라서 기업성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배출량(Attribution factor×Emissions)이고, 개인용 차량 보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귀속계수×포트폴리오 내 피보험 차량(Attribution factor of portfolio×Emissions of insured vehicles within portfolio P)이다.

4) 보고기준 연도 및 시기

보험회사는 기준 연도 및 목표 연도와 보험회사가 달성한 진척도를 보고해야 하는 날짜 등을 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NZIA에 가입한 날짜에 따라 목표를 보고 해야 하는 날짜가 달라진다.

기존 NZIA 회원은 NZIA 약정(Commitment)에 따라 첫 번째 프로토콜이 발표된 2023년

1월에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7월 31일까지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첫 목표는 5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해야 하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3가지 목표 범주에서 각 1가지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신규 NZIA 회원 요건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신규 NZIA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가지 목표 유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2024년 7월 31일까지 프로토콜의 3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 적어도 하나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회원국은 2024년 7월 31일까지 프로토콜의 세 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서 최소 하나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회원국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토콜의 세 가지 목표 범주 각각에서 하나 이상의 목표 유형을 설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목표를 설정할 때 2019년 이전으로 기준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단기 목표로 늦어도 2030년까지 목표연도를 채택하고 그 후 2035년, 2040년 및 2045년에 5년마다 중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율 목표는 발표일(즉, 기준 연도와 목표 설정일 사이의 기간)까지 이미 달성한 것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A는 첫 번째 단기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고 그 해에는 2035년, 2035년에는 2040년 등으로 업데이트된 목표를 발표할 수 있고, 보험회사 B는 첫 번째 단기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설정하고 그 해에는 2035년, 2035년에는 2040년 등으로 업데이트된 목표를 발표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의 향후 버전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2024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척 보고서를 통하여 각 목표 유형과 합산 관점에서 각 회사의 독립적으로 결정된 감축목표의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이는 목표가 설정된 후 최소 12개월의 실제 경험이 지난 후에만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는 공식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데 공식채널은 연차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TCFD, 지속가능보험원칙(PSI) 공시와 CDP의 연례 설문조사 등이다. NZIA 회원사는 NZIA 사무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NZIA는 모든 회원사의 감축목표 관련 정보를 NZIA 웹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다.